

월간 내일

August 2025
Vol.603



배우 차학연



CONTENTS

빛나는
결과,
섬세함의
증거



<내>일의 감각이 필요한 시대,
나의 일을 위해
필요한 감각에 관한 이야기

08

다짜고짜 설문
작은 디테일이 성과를 바꾼다

10

일잘러를 만나다
넓은 공감과 깊은 연대로 이루는 지속 가능한 자주적 혁신
아성플라스틱밸브(주)

16

내일 인터뷰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디테일의 미학
배우 차학연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고용 관련 정책과
활기 넘치는 현장의 소식

20

MOEL 아카이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전기차 정비 전문가 되기

24

굿 파트너
효율적 '맞춤', 가까이 '밀착' 취업지원의 완성도를 높인다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총괄과

28

체인지업! MOEL
노동존중호의 첫 운행, 현장에서 변화가 시작되다
제11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32

함께 하는 MOEL
그 자체로 빛나는 당신이기예, 이미 환하다
김보라 씨의 도약기

36

내일 로그
자동차에 비행을 더하다
플라잉카 개발자

38

어땠을까
드라마 <서초동> 밖 직장인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워라벨을 위한
다양한 문화정보

40

MOEL 뉴스

44

아보하 스폿
울여름, 시원한 바다 뷰 맛집
포항으로

48

내일 톨
• 섬세씨를 소개합니다
• 유연함이 치트키

50

취향시대
무채색 사무실을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플랜테리어

52

직장인 어휘 캘린더
감정을 건네는 작은 언어 조각들
이모지와 이모티콘

54

내일 모의고사

August 2025 Vol. 603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경성문화사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의 저작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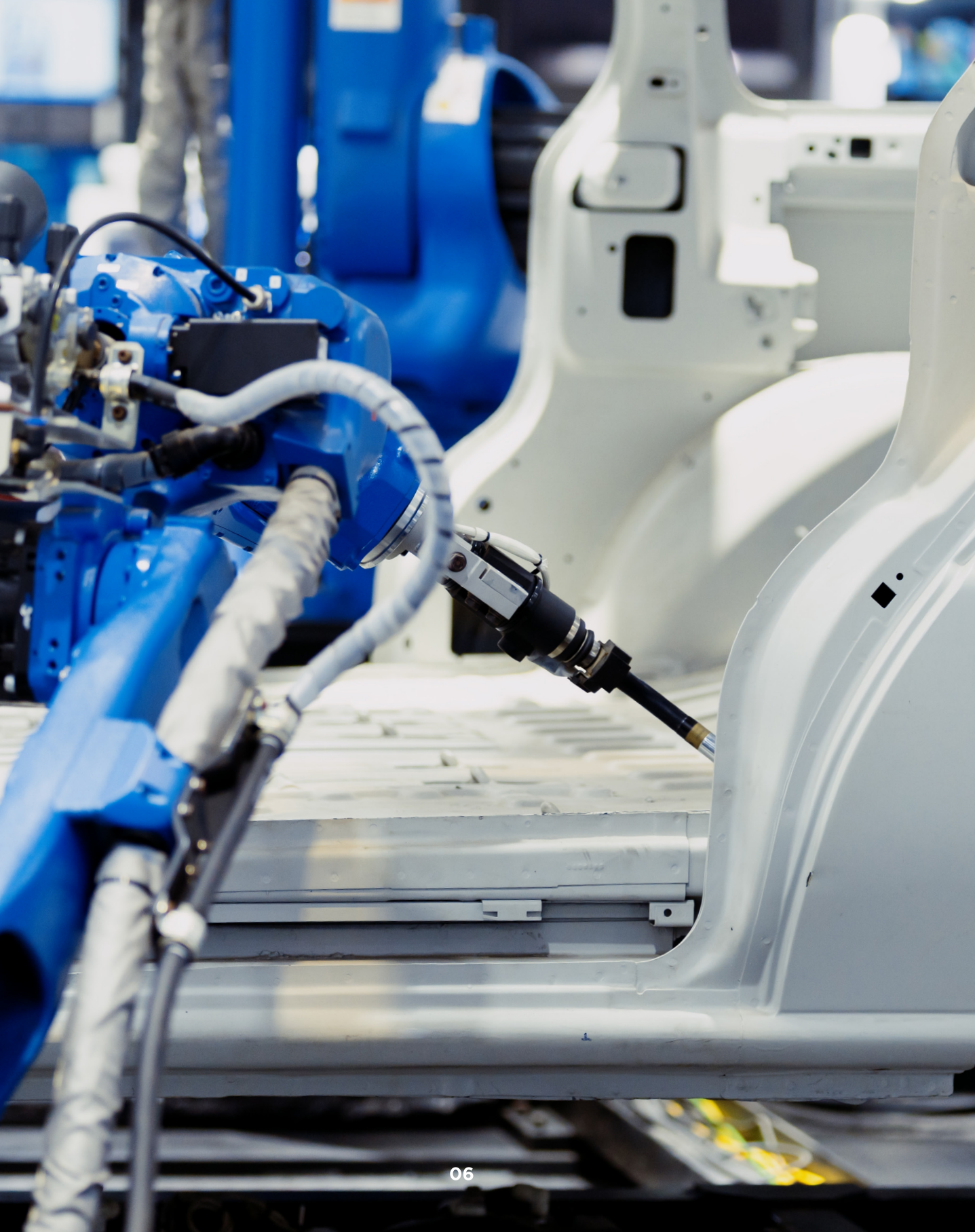
월간 내일
웹진 바로가기

섬세함이 빚어내는 일의 결

섬세함은 작은 틈새를 놓치지 않는 마음이자,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불편까지
먼저 헤아리는 깊은 배려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에서 한 번 더 손길을 거두어
확인하는 태도에서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지요.
이러한 섬세함은 평범한 순간을 특별한 감동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 첫 출시 전,
매장 진열 테이블의 목재 질감까지
직접 고르는 섬세함을 보였습니다.
고객이 제품을 만지는 순간 느낄 촉감과 온도를 고려한
그의 디테일은 애플 스토어를 단순한 매장이 아닌
‘경험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작은 차이가 만들어낸 큰 울림이었습니다.





토요타 생산 현장에서는 작업자 한 명이
볼트 하나를 조이는 각도까지 세심하게 분석합니다.
0.1초의 동작 개선이 하루 수천 대 생산에서는
몇 시간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지죠.
이런 미세한 개선의 축적이 토요타를
세계 최고 품질의 자동차 회사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섬세함은 곧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됩니다.

이처럼 섬세함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보이지 않는
불편을 먼저 알아차리는 따뜻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결과물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세심한 접근은
제품이든 서비스가든, 혹은 관계이든 간에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한 가치를 더합니다. 이러한 섬세함은 언제 어디서 드러나든,
깊은 울림을 남기며 평범한 순간을 빛나게 만듭니다.

작은 디테일이 성과를 바꾼다

섬세함 자가 점검

우린 종종 큰 그림에만 집중하다가 작은 디테일을 놓치기 쉽다. 하지만 일의 완성도나 신뢰, 협업의 질은 결국 사소한 걸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달려 있다. 문서 작성이나 고객 응대, 팀 협업에서 ‘섬세함’은 그냥 성격 문제가 아니라 성과를 만드는 능력이다. 다음의 간단한 자가 테스트로 나의 업무 스타일에서 어떤 부분이 이미 섬세하고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지 확인해보자.

글 편집실

섬세함 셀프 테스트(자기 점검표) 각 문항에 대해 해당하는 정도를 체크하세요.

·1점 전혀 아니다 ·2점 아니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중요한 문서를 제출하기 전, 맞춤법과 레이아웃을 꼼꼼히 확인한다.	☐	☐	☐	☐
2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말하는 편이다.	☐	☐	☐	☐
3	업무 중 빠뜨리기 쉬운 사소한 항목도 체크하는 편이다.	☐	☐	☐	☐
4	협업 시 타인의 입장이나 일정까지 배려하려 노력한다.	☐	☐	☐	☐
5	이메일 제목, 문장, 마무리 인사까지 신경 쓴다.	☐	☐	☐	☐
6	고객/상대방의 말투나 반응에서 작은 단서를 파악하려 한다.	☐	☐	☐	☐
7	반복되는 실수가 생기면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책을 마련한다.	☐	☐	☐	☐
8	디테일을 챙기기 위한 나만의 루틴이나 도구가 있다.	☐	☐	☐	☐
9	내 작업 결과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려한다.	☐	☐	☐	☐
10	작은 실수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개선하려 한다.	☐	☐	☐	☐

점수 해석(총점: 50점 만점)

41~50점

매우 섬세한 스타일. 디테일, 배려, 완성도 면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31~40점

기본적으로 섬세하지만, 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1~30점

전반적으로는 보통 수준이나, 중요한 부분에서 디테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11~20점

섬세함이 부족한 편입니다. 실수나 커뮤니케이션 오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0~10점

섬세함이 거의 없는 수준. 업무 품질과 관계 형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섬세한 업무 문화를 확산시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더블 체크]가 필요하다

일 처리를 하다 보면 아주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제한된 시간 안에 처리하기 위해 살짝 미뤄두는 부분도 있고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점검 단계에서 다시 한번 중요사항을 체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작업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더블 체크는 이러한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고 수정해 최종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남 통영시
정희선 씨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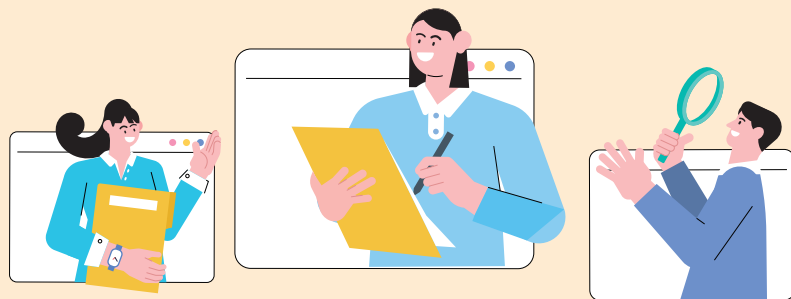
섬세함은 일의 맥락과 관계를 함께 읽어내는 감수성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를 한번 더 생각하고, 그에 맞춰 일의 방향을 조율하는 공감 능력이 중요합니다. 공감은 관계를 연결해 협업의 질을 높이고 업무 결과를 한층 더 탄탄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를 쓸 때도 읽는 사람의 이해 흐름을 먼저 고민하면 자연스럽게 구조가 정돈됩니다. 결과물의 완성도는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얼마나 고려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천안시
김태일 씨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야간학교에 다니며 주경야독 중인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평균 70대 중반인 우리 반은 결석이 잦아 반장인 저는 늘 건강과 상황을 살핍니다. 며칠 만에 등교한 급우께 “건강해야 공부도 계속하죠!”라며 인사를 드렸더니, 감사의 뜻으로 제 책상에 옥수수과자를 놓고 가셨더군요. 결국 서로의 건강과 처지를 살피는 배려와 관심이야말로 섬세한 일 처리의 근본임을 다시 느낍니다. 앞으로도 세심히 챙겨 우리 반을 더 좋은 학급으로 만들겠습니다.

대전 대덕구
홍경석 씨



9월호에서 함께 얘기 나눌 감각은 ‘협상력’입니다. 상대방과 이견이나 이해관계를 조율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필요할 땐 물러서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균형 있는 감각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QR 코드를 스캔해 설문에 참여하시면, 소정의 상품도 드립니다.

넓은 공감과 깊은 연대로 이루는 지속 가능한 자주적 혁신

아성플라스틱밸브(주)

제조업의 인력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근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성플라스틱밸브(주)는 일자리의 질과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임금체계와 평가체계를 개편하며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구축했다. 회사와 구성원, 조직과 개인이 함께했기에 더욱 값진 변화를 이끌 수 있었다.

글 김주희 사진 김경수



임금체계의 새로운 기틀 마련

제조업은 인적 자원이 중요한 성장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제도적인 정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의 불만을 비롯해 우수 인재 이탈, 인재 확보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누적되면 기업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아성플라스틱밸브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선제적인 일터 혁신에 나서고 있다.

플라스틱밸브와 배관자재 전문생산기업인 아성플라스틱밸브는 국내 플라스틱배관 분야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 1967년 창립할 당시 해외 수입에 의존했던 제품과 기술의 국산화라는 사명을 바탕으로 출발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을 실현한 끝에 현재는 초소수용, 산업용, 소방용, 자동밸브 등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구성원은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뉘며 총 120여 명이다. 최근 아성플라스틱밸브는 숙련 인력 유지의 어려움과 저성장 기조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경영관리팀 한재민 대리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했다.

“업무 역량과 무관하게 연봉이 결정되는 호봉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성과와 실적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임금체계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저성장 기조를 고려할 때, 유연한 보상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임금체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할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임금 및 평가체계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며 본격적인 개선활동에 나섰다.



MINI INTERVIEW



생산관리팀 윤철희 팀장

“생산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업무 분장이나 직무 편성이 모호했던 터라 ‘내 일 네 일’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오는 갈등이 있었죠. 이번에 또렷한 기준을 세우고 직무를 분류하니 팀원 및 부서 갈등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현장 업무는 노동의 강도나 근로 환경이 워낙 다양한데, 이를 세심하게 고려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연구개발팀 황인균 과장

“임금체계 개편을 앞두고 직무 등급을 분류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구성원으로서 이런 시스템이 왜 갖춰져야 하는지,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 매우 유의미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일터를 혁신한다는 점에서 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진 것은 물론 주변 팀원들도 만족도가 높은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을 더한 직무 등급 설정

아성플라스틱밸브의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은 직무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다. 개별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직무 등급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가장 먼저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크게 나눈 후, 직무의 난이도를 비롯해 책임성,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차등을 뒀다. 이를테면 생산직의 경우 기술 숙련도가 얼마나 중요한 직무인지 헤아렸고, 야외에서 일한다거나 중량물을 이동하는 작업인지 등 근로 환경과 특성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식이었다. 사무직의 경우에도 연구개발이나 해외영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인지, 영업부서처럼 감정 노동으로 불리는 직무인지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직원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댔다.

“단순히 인사관리 부서나 경영진 선에서 결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각 부서 구



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공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다행히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었어요. 또한 처음부터 임금 차등을 큰 폭으로 두면 불만과 거부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각도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 수준을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확립한 직무 등급을 기반으로 평가 및 승진체계까지 개선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직무별로 필요로 하는 실적을 체크하는 등 구체적이고 정교한 프로세스를 통해 내부 체계를 마련했다.

만족도는 높이고, 이직률은 낮추고

임금 및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변화가 뒤따르

기 시작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직률이 5~6년 전과 비교해 10% 이상 낮아졌다는 것이다. 제조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인력 충원이다.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 것도 힘들지만,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 이직률을 낮춤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채용 및 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조직 변화 이후 직원만족도조사를 실시했는데, 평가·임금·승진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고르게 만족도가 올라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임금 인상이 된 구성원들은 ‘인정받는 기분이다’,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 등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이어가고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1:1로 반응을 파악



하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실 조직을 바꾼다는 것은 수많은 고민과 소
통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아성플라스틱밸브의 김윤욱 대표는 10여
년 전부터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를 주도하며
꾸준한 변화를 모색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과 시도가 빛을 발하며 더 나은 미래를 그리는
발판이 되고 있다.

기업과 구성원이 동반성장하는 미래

일터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끈 아성플라스틱밸
브는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다. 우수 인재 확
보와 구성원의 역량 향상에도 공을 들이는 것.
특히 채용 단계에서부터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직무 교육 등
을 통해 내부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기술서를 바탕으
로 직무별 필요한 교육과 훈련 내용을 체계화
하고 이를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다. 일하는 방식에도 트렌드를 반
영할 예정이다. 생성형 AI를 적용한 사무자동화
를 선진적으로 도입해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의지다. 이 밖에 동호회 활동이나 사
택 제공 등을 지원하며 더 나은 일터를 만들 계
획이다.

“인사관리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포용성 있
는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
다. 시대에 따라, 또 세대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다르고 개인별 입장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
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아성
플라스틱밸브는 앞으로도 일터혁신을 거듭할
것입니다. 직무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데 집



**“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고 변화하며,
공정한 임금과 유연한 조직문화로
모두가 성장하는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할 계획이고요. 유연근무제와 근무 일수 단
축 등 최근 이슈를 파악하고 사전에 대응할 것
입니다. 그리고 일터혁신 컨설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며 다른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혁신은 기존 질서와 공식을 과감히 바꾸는 것
에서 시작한다.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오늘을
혁신하며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아성플
라스틱밸브. 이들의 미래에는 기업과 구성원이
동반성장하는 이정표가 굳건히 세워져 있다.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디테일의 미학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결정적으로 대중의 마음에 가닿기 위해서는 ‘섬세함’, 그 작은 디테일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일을 잘 알고, 잘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일을 사랑해야 하고, 일을 통해 보이고 싶은 메시지를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 아이돌 그룹 빅스의 멤버 ‘엔’으로도 유명한 배우 차학연은 그 섬세함의 미학을 제대로 체험했다.

글 하경현 경향신문 기자 사진 51K

연기를 생활로 ... 디테일이 만든 캐릭터

차학연은 최근 막을 내린 MBC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에서 고건우 역을 연기했다. 기자 출신 크리에이터로 각종 사회적인 이슈를 펜 대신 카메라를 들고 쫓는 인물이다. 어느 날 인연을 맺은 노무사 노무진(정경호)을 따라다니다 우리 사회의 배경에 깔려있는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각종 부조리를 ‘게릴라군’처럼 채널을 통해 외부에 알렸다.

‘노무사 노무진’은 유령을 보는 노무사 노무진이 각종 노동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이다. 흔히 ‘노동문제’라고 하면 무겁고 진중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리틀 포레스트’ 등을 연출한 임순례 감독은 이 작품에 ‘귀신 보는 노무사’라는 판타지 설정을 가미해 훨씬 대중에게 쉽게 다가오게 했다.

“대본을 받고 건우라는 인물의 매력을 느꼈어요. 그런데 대본을 보니 마냥 가볍지 않은 작품이었

던 거죠. 진중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됐어요. 인물들이 사건을 대하는 데 있어 진심이 아닌 적은 없었고 코믹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진심이었던 부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대본에서 설정된 캐릭터에 차학연은 자신의 노력으로 섬세함을 가미했다. 일단 전제하자면, 그는 보통의 크리에이터나 극 중 건우처럼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었다. 그래서 구독자를 뜻하는 ‘장아찌’들을 부르는 첫 장면부터 귓불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부끄러움은 어쩔 수 없었다.

“제 방에 자그마하게 인터넷 방송 부스를 만들었어요. 누가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사비를 들여 만들었죠. 조명도 설치하고 컴퓨터도 꾸며서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들을 보니까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걸어 다니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두 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타일로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하고 감독님의 허락을 받고 저만의 방송을 했어요.”





MBC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장면 중



그의 섬세함이 발현된 지점은 또 있다. 평소 동경하던 정경호와 함께 연기할 때도 그의 동선을 매니저를 통해 알아내 미리 파악한 다음, 촬영 전 항상 산책하는 정경호를 따라다니며 연기를 물었다.

“계속 선배님 곁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 박에서 산책하시는 모습을 발견한 순간 바로 옆에 붙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귀찮으셨을 겁니다.(웃음) 매니저분을 통해 선배님의 매니저를 통해 도착 시각도 확인했거든요. 정경호 선배님이 촬영 현장에서 저를 인정하시는 순간 ‘견우에게 의지하시는구나’ 싶어 오히려 든든하고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노동문제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

‘노무사 노무진’은 노동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뤘던 작품답게 여러 사건이 펼쳐졌다. 현장실습을 했던 고교생의 사망사건, 간호사 사이의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괴롭힘 사건, 청소 노동자의 쟁의, 주차장 직원의 폭행 사망사건 그리

고 대미를 장식한 창고 화재사건 등 실제 사건에서 모티프를 딴 듯한 소재가 등장했다. 하지만 극을 다루는 시선은 마냥 분노나 복수에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유쾌하고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는 장면이 많았다.

“극 중 대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동자기 이전에 사람이다.’ 아마 이 대사가 저희의 드라마 주제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배우이고 직업이 있지만, 그에 앞서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보통 많은 일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일인데 저는 그동안 이 일을 그냥 직업으로 대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작품을 하면서 조금씩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노동문제를 다룬 드라마’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는 드라마’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는 특히 ‘노무사 노무진’에서 청소 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룬 5, 6회가 인상에 남았다고 했다. 노동자들의 쟁의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을 둘러싼 이야기가 더욱 풍성하게 전

해지자 안타까움과 슬픔이 밀려왔다. ‘바로 우리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 안타까움이 더욱 잘 다가왔다.

“방송이 되고 많은 반응을 찾다 보면 실제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분노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저희 드라마가 주로 홀수 회차에서는 분노하고, 짝수 회차에서는 해결하는 구조인데 화를 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에게 ‘한 회만 더 기다려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느낌이었죠. 소재로서는 극한의 노동자를 이야기하지만, 일상적인 노동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노래와 연기가 業인 노동자

2012년 아이돌 그룹 빅스의 멤버로 데뷔한 그는 2014년 MBC 드라마 ‘호텔킹’으로 연기도 겸했다. 13년 동안 21장의 한국 앨범, 18편의 드라마. 최근 개봉한 ‘태양의 노래’ 한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그 역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이기 앞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와 연기로 기쁨을 주는 ‘노동자’다. 20대 초반부터 계약과 계약이 오가는 고용관계를 경험한 그 역시 이 과정의 중요함과 가치, 자신의 특별한 노동이 대중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지 체감했다.

“사실 예전에도 노무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조금 있었어요. 이번 작품의 사건을 접하면서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분노의 감정, 하나를 생각하기보다 감정의 깊이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민을 좀 더 하게 됐고 해결은 다 할 수 없지만, 힘이 될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많은 분들에게도 영향을 드렸으면 하고요.”

차학연은 이미 찍어놓은 한 편의 드라마를 비

롯해 앞으로 두 편의 드라마 작품으로 대중을 만날 계획이다. 빅스로서도 10주년을 훌쩍 넘긴 여정을 멤버들과 계속할 예정이다. 작품을 위해 개인적으로 인터넷 방송 부스를 집에 차릴 정도로 애를 쓰고, 존경하는 선배의 동선까지 확인해 연기에 대한 갈증을 풀려 노력했던 그만의 세심함. 그의 가치 있는 ‘노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욱 기쁘게 할 것인지. 이제 서른이 된 배우의 앞길은 희망차기만 하다.

“노무진이 극 중에 ‘이제 끝난 건가’하는 마지막 대사는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무진이와 회주(설인아), 견우가 필요한 사람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끼는 것처럼 이 드라마를 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시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저희 ‘무진스(삼인방의 별명)’가 옆에 있습니다. 또 다른 무진스가 생겨날 것을 바랍니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전기차 정비 전문가 되기

전기차 시대, 부족한 정비인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기아가 손잡았다.
전액 지원에 취업 연계까지 가능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과정'이 전국에서 문을 연다.

글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추경 반영으로 더 두터워진 지원... 전기차 정비인력 훈련 본격화, 채용 연계까지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정비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아, 오토큐(한국종합오토큐연합회,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와 손잡고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과정'을 전국 11개 직업훈련기관에서 본격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지난 4월 체결된 민·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기아 자체 조사에 따르면 오토큐에서만 약 500명 이상의 정비인력이 부족하다. 또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산업 부족 인력의 61%가 전기차 등 미래차 정비 분야인 만큼,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어떤 훈련인가?

- 기아가 직접 설계에 참여해 최신 전기차 정비 트렌드를 반영, 현장성을 대폭 강화했다.
- 배터리·모터 등 전기차 교육용 정비 부품과 완성차 실습 교보재까지 무상 제공.
-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으로 훈련을 성실히 마치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오토큐에 취업 시 2년 경력에 준하는 '사내 기술자격 레벨 1'도 부여된다.

수료 후 취업까지 연결

주요 차량관리센터(오토큐 등)에서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채용 행사를 열어 현장에서 바로 우대 채용을 진행한다. 실무 중심 훈련 → 채용 연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추경으로 더 강해진 국민내일배움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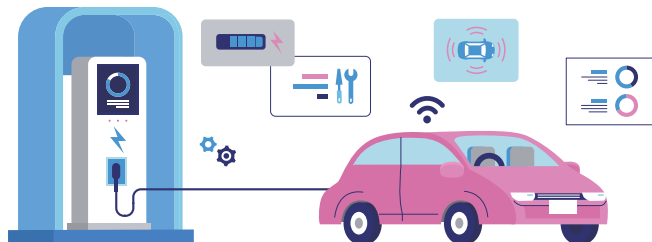
정부는 최근 2025년 2차 추경(1조 4,581억 원)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안전망을 대폭 보강함으로써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기본 5년간 300만 원 한도	+	100~200만 원 추가 지원 (기간제·단시간·일용직 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	훈련장려금 최대 월 31만 6천 원 (일정 요건 충족 시)
---------------------	---	--	---	--

신청 절차 꿀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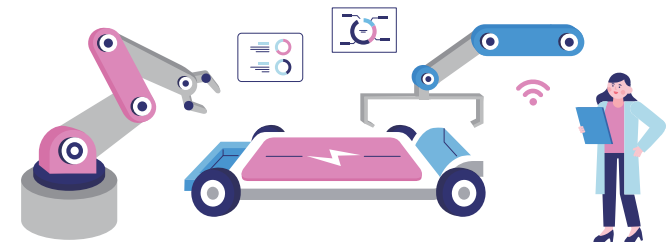


- 1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보통 1~2주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 신청할 것.
- 2 훈련과정 검색 & 신청**
· 고용24 → 직업훈련 메뉴에서 '전기차 정비' 검색.
· 가까운 훈련기관과 일정, 모집 정원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 3 추경 반영 확인 팁**
· 카드 발급 후 계좌 조회 시 '300만 원 + 추가 한도'가 표시되는지 확인.
· 본인이 기간제·일용직 등이라면 추가 지원 신청 여부를 꼭 체크!
- 4 훈련기관 사전 면접 or 상담**
일부 기관은 적성검사나 간단한 면접을 한다. 성실한 태도가 중요.
- 5 훈련 수강 후 자격평가**
졸석률, 실습 과제 등 충실히 참여하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취득까지 가능.
- 6 오토큐 채용 행사 참여**
훈련기관에서 수료생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 행사를 안내한다.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훈련과정 개설 기관

훈련기관명	주소	훈련인원 (명)
부천직업전문학교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53번길 8	15
쌍용직업전문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53번길 8	24
그린자동차직업전문학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417번길 51	90
부산자동차직업학교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245번길 9	23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21	40
울산미래자동차직업전문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29	20
(재)이찬경북직업전문학교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로 20번길 28	24
(재)대성직업전문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96	40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첨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02	40
현대직업전문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61-3	30
대덕 자동차직업전문학교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10	15



효율적 '맞춤', 가까이 '밀착' 취업지원의 완성도를 높인다

지원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구조와 방식을 대상자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총괄과는
지역에 꼭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구직자와 기업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모두'를 위한 취업지원을 완성하는 중이다.

글 김주희 사진 김경수

취업 의지를 강화하는 특화 협업 모델

취업지원과 진로지도 사업을 전담하는 취업지원총괄과는 지난해 '특화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하며 '2024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을 수상했다. 이는 특별한 '연대'가 이끈 결과다. 각 부서 및 관내 유관기관들이 협업 네트워크를 만들고 협력 모델을 구축한 덕분이다.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한데 모으는 유기적인 구조를 꾀한 것이다. 진로지도팀 나은숙 팀장은 차별화된 지점으로 취약계층별 맞춤 지원을 손꼽았다.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더욱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금융-복지를 연결한 복합지원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금융·재취업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 자활수급자 취업 의지 제고, 구직단념청년 일경험 참여를 적극 연계하며 다각도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더욱이 심층 상담이 필요한 구직자에게는 내·외부 협업을 통해 경력자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구직자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긍정적으로 취업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손에 잡히는' 생생한 경험을 통해 구직 의지를 높인 것이다. 구직 단념 청년이나 취업 의지가 약한 니트 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이다. 실무 중심의 다양한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률이 무려 107.3%에 이르는 등 우수사례로 공유되면서 광주 전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에 확산하는 성과를 이뤘다.

광주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취업지원총괄과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총괄과 직원들



연대와 협력을 통한 졸졸한 지원

구직자 지원사업의 경우 개인 맞춤형으로 섬세하게 제공하며 실효성을 높여갔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직자의 역량 진단, 경력개발 로드맵 수립, 취업활동계획 설계,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센터 내 모든 상담 창구가 힘을 모아 연계 협력 모델 구축했다. 이때 상담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법.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팀 이은정 팀장은 높은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진 상담가들 덕분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구직자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개개인의 관심사와 니즈, 적성, 능력 등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취업을 준비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회성 상담을 넘어 다수의 대면 상담을

진행하면서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외부 강사 초빙 교육 등 상담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도 꾸준히 진행했어요.” 이 밖에도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참여자 중 경력유지자와 경력준비자 간 멘토링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단계별 경력 설계를 지원하는 ‘너도도약 나도도약 경력나눔’을 진행했다. 이처럼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센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각 과의 협업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한 결과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자 수는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기업과 구직자를 잇는 상생 공식

광주에는 가전, 자동차산업, IT 분야의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다. 취업지원총괄과는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컨설팅,

취업, 채용지원에 이르는 맞춤형 서비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진행했다. 기업도약보장패키지팀 이은정 팀장과 민인영 주무관은 기업과 구직자의 상생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센터 업무가 구직자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기업이 겪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광주 지역적 특성에 맞춰 모델링 했는데요. 기존 프로그램에 지역 내 기업의 니즈와 취업시장 환경을 섬세하게 반영하며 기업과 구직자를 긴밀히 연결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재를 지원하는 ‘빛타민(빛고를 기업성장 타이밍)’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57개의 기업이 참여해 320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 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해 ‘중소기업지원의 신’이라는 공동 컨설팅을 진행하는가 하면, 중소기업 인지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빛이나 일자리 수요데이 in 광주’ 성과도 돋보인다. 취약계층, 구직자, 훈련생과 기업을 잇는 공동 채용 행사 ‘빛이나G’를 30회 개최하는 등 지역 채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취업지원총괄과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기 위해 고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것이다. 정광균 과장은 이 과정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 직원들의 역량이 매우 뛰어납니다. 20~30년 경력을 바탕으로 짜임새 있는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요. 선배 직원의 역량이 후배 직원들에게 잘 전승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훌륭한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 직원들 간 학습 활동을 비롯해 선후배를 한 팀

으로 구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본부 차원의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지원총괄과는 앞으로도 ‘맞춤’과 ‘밀착’이라는 방향성을 잘 이어나가며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금융·복지를 엮은
따뜻한 지원으로, 취약계층이
다시 한 번 희망을 품고
일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다**



노동존중호의 첫 운행, 현장에서 변화가 시작되다

제11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2025년 7월 22일,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지휘봉을 잡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첫 행선지로 찾은 곳은 건설현장이었다. 줄곧 '노동 존중'을 외쳐온 그는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살펴보았다.

구성·사진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불시점검(2025.7.22)

힘내라 중소기업! 다지 뛰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장관님 방문을

2025. 7. 24 KBIZ 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방문(2025.7.24)

**"땅의 가치보다 땅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향해 실패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노동존중호'에 탑승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열차 정시로 출발하겠습니다."**

진심 행보로 현장과 사람을 잇는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명은 노동계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과거 노동운동의 최전선에서 '노동 존중 사회'를 외치던 상징적 인물이 이제 고용노동정책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노동계 출신이라는 그의 배경만큼이나, 첫 행보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그러나 김 장관은 취임식 대신 현장을 먼저 찾았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 서울 외곽의 한 건설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그는 직접 안전모를 쓰고 가파른 비계 사다리를 오르며, 철근 배근 상태, 가설 자재 적치 방식, 추락 방지 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책상에서 보는 통계와 현장에서 느끼는 위험은 완전히 다르다"며, 현장 관리자와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생명보다 중요한 공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행보는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스스로를 장관이 아닌 '산업안전

감독관'으로 규정하며, 이후에도 매주 전국의 산업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정책은 책상에서 시작되지만, 정의는 발로 걸어 만들어진다"는 그의 신념이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김영훈 장관의 정책 철학은 취임 일주일, 주말도 무색한 경청의 진심 행보로 이어졌다. 경제단체를 먼저 방문하여 '친노동이 친기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청년들이 겪는 취업과 일터 고민을 경청하며,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멘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끼임 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공장을 대통령과 방문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을 첫 방문해 정책협약 실천의지를 강조했다. 주말에는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하는 해고노동자의 절박한 이야기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2025.7.22)

듣고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직원과의 소통도 진행하였다. 7월 24일 늦은 오후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 낭독 뒤에 김 장관이 직원들이 작성한 질문지를 직접 건네받아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장관의 평소 성격과 스트레스 해소법, 가장 이루고 싶은 노동정책 등 다양한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하면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뀌어나가는 마음으로 호흡을 맞춰 나가자고 했다.

일하는 사람을 향한 오랜 신념,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김영훈 장관의 진심 행보는 과거 철도노조 위원장 시절부터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2005년, 서울 영등포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그는 ‘엘리베이터 설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이윤보다 안전, 돈보다 생명’이라는 강력한 구호 아래 진행된 이 운동은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2006년, 그는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직접 철도노조 규약을 개정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간접고용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승무원들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구속되기도 했지만, ‘노조 안에서도 평등해야 진정한 정의’라는 그의 소신 있는 발언은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피자 배달노동자의 비극적인 사망사고 당시, 그는 “조금 늦은 피자는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로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고, 결국 30분 배달제가 폐지되었다. 이는 결국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로까지 발전했다. 정부 국정 철학인 ‘노동 존중 사회’도 김 장관이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 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비전으로 최초 제시한 바 있다.

대화를 이끄는 설득가 싸움보다 사람을 남긴 리더십

김영훈 장관을 오랫동안 지켜본 동료들과 노동계 인사들은 그를 ‘싸우는 지도자’이기보다 ‘대화를 이끄는 설득가’로 평가한다. 2000년 철도연수원 교육생 시절, 학생회 대표로서 당시 만연했던 교수 접대 문화를 과감히 개선한 일화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학생들과 교수들 모두를 설득하며 갈등 없이 혁신을 이뤄냈고, 이에 대해 “혁신은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충돌을

동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리더십은 2021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시절에도 빛을 발했다. 복잡하게 얽힌 부산교통공사의 노사 갈등 상황에서, 김 장관은 자신의 철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노사 수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그는 ‘조정’은 싸움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을 열어가는 과정’이라는 신념을 굳건히 지키며 현장의 신뢰를 쌓아갔다. 민주노총 위원장 당시 민주노총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기존 사무실 청소노동자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그리고 입주 첫날 가장 먼저 청소노동자들과 오찬을 나눴다. 이는 후에 정치권에 확산된 ‘청소노동자 존중’ 문화의 시초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영훈 장관의 삶과 철학은 노동 투쟁을 넘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설득을 통한 변화, 그리고 정의는 투쟁이 아닌 대화로 이뤄진다는 신념으로 일관되게 실천되어 왔다.

노동 존중 정책으로의 전환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하며, 공정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그는 “고용노동부의 궁극적 사명은 국민 한 사람, 노동자 한 사람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현장 중심, 사람 중심, 안전 중심의 노동정책 대전환을 예고했다.

특히 그는 “노동정책은 국민 통합의 토대가 될 수 있어야 하며, 경제 성장과도 양립 가능한 상생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노사정

간 신뢰 회복을 통해 분절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청년과 중장년, 여성,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이 일터에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안전망과 직업 훈련, 노동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전태일 열사를 꼽았다. “그분이 던진 외침은 지금도 유효하다. 일하는 사람들이 존엄하게 대우받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노동 존중 사회”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은 곧 사람의 문제”라며, 사람 중심의 노동정책을 약속했다.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노동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한 전태일 열사의 유언인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를 인용하며, 우리 모두가 연대의 이름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모든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영훈 장관의 진심 행보와 함께 힘차게 출발한 ‘노동존중호’가 순행하길 기대한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선언(2025.7.23)

그 자체로 빛나는 당신이기때, 이미 환하다

김보라 씨의 도약기



몇 년을 쉬었다. 꿈은 멀어졌고, 세상과도 멀어졌다.
다시 아침에 눈을 뜨고, 단장을 하고, 걷고, 일터로 향하게 된 건 우연 같지만 단단한 선택이었다.
김보라 씨는 말한다. “밥값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에요.”

글 차유미 사진 김규남

“아침에 눈을 떠 출근할 수 있다는 것”

김보라 씨는 요즘 매일 아침이 설렌다. 눈을 뜨고, 회사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서는 평범한 일상이 더없이 소중하다. 출근길에 햇살을 맞으며 걷는 그 순간, ‘나도 이제 남들처럼 밥값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실감이 들 때면 마음이 꼭 찬다. 직접 번 돈으로 연차를 쓰고, 여행을 계획하고, 점심값을 계산할 수 있는 삶. 그녀는 그 일상을 ‘행복’이라 부른다.

이토록 사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누리기까지, 그녀는 오랜 시간을 돌아왔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꿔다. 신촌 거리를 거닐던 스무 살의 그녀는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났다. 하지만 몇 년에 걸친 고시 낙방은 꿈과 현실 사이의 깊은 간극을 만들었고, 대학 졸업 후 그녀의 삶은 ‘고시 준비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었다. 점점 자신을 잃어갔고, 결국 “그냥 쉰다”고 대답하는 청년이 되었다. 자신이 무언가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불안, 어디에도 쓸모없다고 느끼는 무력감은 깊은 어둠처럼 그녀를 잠식했다. 고시공부를 포기한 뒤에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머리를 식히는 중”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 말조차 믿기 어려운 나날이었다. 그렇게 30대 중반이 되었다. 사랑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김보라 씨는 그간 흘려보낸 시간의 무게

를 온전히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다짐했다. 이제는 자신에게 솔직해지겠다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성남고용복지+센터에서 마주한 첫 번째 어른 ‘일단 내일배움카드부터 만들어야지.’

단순한 생각으로 찾은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막연하게 자격증 하나 따야겠다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상담사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혹시 도약보장패키지 해보실래요?”
그게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그녀는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곧 상담사 선생님과 마주 앉게 되었고, 첫 면담에서 현실적인 진단이 이어졌다. “현재 나이와 경력을 고려하면 일반 사기업이나 서비스직 입사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냉정한 평가였다. 하지만 김보라 씨는 상처받기보다 오히려 마음이 시원해졌다. 누군가가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짚어준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나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후 상담사는 그녀에게 직업심리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사회형(S)과 관습형(C)’. 고객 응대에 능하고, 체계적인 조직 내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분석이었다. 고시 준비만 해오며 진로를 떠올릴 겨를조차 없었던 그녀에게 이 결과는

하나의 단서가 되었다.
 “이제부터 진짜 이력서를 써보자.”
 그때부터 상담사와 함께 하나씩 준비가 시작되었다. 과거의 알바 경험, 짧은 교육 수료 이력, 남들에겐 시시해 보일 수 있는 이력들도 놓치지 않고 정리해갔다.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 준비를 시작했고, 주 1~2회 꾸준히 면담하며 자신감을 조금씩 회복해갔다.

기회를 붙잡다, 그리고 진짜 보람을 느끼는 순간
 어느 날, 성남에 위치한 잡월드 청소년체험관에서 정규직 사원 모집 공고가 떴다. 상담사는 말했다.
 “보라 님, 이걸 해볼 만해요. 지금까지 준비한 걸 잘 녹이면 가능성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김보라 씨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썼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늘 불합격하던 이력서였고, 자랑할 만한 경력도 없었다. 그럴 때마다 상담사는 방향을 잡아주었다.

“기업이 보고 싶은 건 학력보다 조직 적응력, 실무 역량이에요. 아르바이트 경험도 그 안에 녹여낼 수 있어요.”

상담사는 그녀의 백화점 데스크 경험, 과외 경험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끌어냈다. 어떤 고객을 응대했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정리해 면접 준비까지 도와주었다.

그리고 면접을 앞둔 마지막 날, 상담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대로 너무 좋아요. 보라 님은 자체로 빛



나는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하세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면접장에 들어섰다. 결과는 ‘합격’. 몇 년 만에 받은 첫 정규직 제안이었다. 출근 첫날, 상담사는 “응원할게요. 언제나 어디서든.”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었다. 작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컥했다.
 지금 그녀는 잡월드에서 청소년들에게 직업 체험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처음 방문한 아이들의 눈망울, 낯선 공간에서 질문을 던지는 용기, 체험을 마친 뒤의 반짝임까지. 그녀는 말한다.
 “아이들이 제 설명을 듣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꿈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보람 있어요.”
 체험관을 나가며 “선생님, 저 이런 일 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던 아이의 뒷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한참이나 따뜻하게 했다. 그녀가 아이들에게 빛이 되듯, 누군가도 예전에 그녀에게 그랬다.

누군가에게 ‘어른’이 되고 싶어요

지금 김보라 씨는 다시 꿈을 꾸다. 65세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목표다. 상담사가 알려준 ‘만다라트’ 계획표를 따라 자격증 준비도 계속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CS리더스 관리자 자격증이 그녀의 목표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아요. 당신도 빛날 수 있어요.”

그녀는 아직도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지 20대 초반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자신처럼 30대 중반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육아와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중장년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가끔 직장 동료들이 묻는다. “어떻게 이 회사에



오셨어요?”

그럴 때 그녀는 웃으며 대답한다.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덕분이에요.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어른’을 만나 길을 알게된 김보라 씨는 이제, 자신의 빛으로 누군가에게 어른이 되어주고 싶다고 말한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의 도약을 돕는 삶. 그녀는, 단단하고 따뜻한 빛을 품은 사람이다.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사업. 진로설계,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 단계별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지원한다.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동차에 비행을 더하다

플라잉카 개발자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속속 현실 세계에 등장하고 있다.
주행과 비행을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플라잉카(Flying Car)가 상용화 수순에 돌입한 것.
이러한 흐름에 따라 플라잉카 개발자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글 강진우



미래 모빌리티 혁신에 앞장서다

올해 초 미국의 한 스타트업은 도로 주행과 비행이 모두 가능한 플라잉카를 시연하며 늦어도 2026년 상반기에는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의 한 완성차 브랜드는 운전자가 탑승 가능한 드론을 실은 드론 분리형 승합차를 모터쇼에서 공개했으며, 올 4분기 고객 인도를 목표로 양산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도 도심항공교통(UAM)을 중심으로 한 플라잉카 개발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플라잉카가 다양한 모습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플라잉카 개발자는 말 그대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떠오른 플라잉카의 개발을 주도하는 전문가다. 다양한 형태의 플라잉카를 연구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 및 적용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도로와 하늘을 번갈아 누비는 자동차 구현에 앞장선다. 기존 자동차의 운행 방법을 뛰어넘는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 교통수단을 개발하는 만큼,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함께 관련 법안의 제·개정에도 참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플라잉카 개발자의 유망성은 관련 연구가 본격화된 201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돼 왔다. 서울산업진흥원은 2018년 12월에 발간한 『2019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직업』에서 ‘플라잉카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이를 증명하듯 완성차 기업, 모빌리티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에서 플라잉카 개발자를 찾는 채용 공고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다방면의 전문성이 필요한 융합적 직업

플라잉카는 자동차 안에 주행 및 비행 기능과 장비를 모두 넣어야 하는 특성상 비행기와 같은 별도의 추진체를 탑재하는 대신 드론과 같은 비행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행 드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플라잉카도 기본적으로는 자동차이므로 자동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 중국 등 플라잉카 선진국을 뒤따라가는 상황인 만큼, 첨단 정보와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등을 배워두면 큰 도움이 된다.

역학, 재료공학 등 각종 기계공학 지식이 출중해야 제대로 된 플라잉카를 개발할 수 있기에 이공계 학과를 전공하면 업계 입문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별도의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플라잉카 관련 기술의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개발자의 필수 요건으로 손꼽힌다.

플라잉카 개발자뿐만 아니라 플라잉카의 안정적 제어를 지원하는 플라잉카 해커, 안전운행을 위한 효율적 비행 경로를 설계하는 하늘길 설계사, 플라잉카의 핵심 부품 개발 및 정비 등을 담당하는 플라잉카 엔지니어 등도 ‘플라잉카 시대’의 도래를 맞아 주목받고 있는 직업군이므로 관련 동향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인생 뭘 별거 있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드라마 <서초동> 밖 직장인들을 위하여



드라마 <서초동>은 '생계형 어썸(법무법인에 속해 월급을 받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한 번쯤 품었던 마음, 열두 번쯤 내뱉었던 말들이 대사가 되어 귀에 쏙쏙 박힌다.
100% 공감 가는 대사를 통해 월급쟁이의 현실을 들여다본다.

글 차유미 자료 tvN <서초동> 공식 포스터

“퇴근시간은 없는데, 왜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나고”

아근이 일상이 된 직장인, ‘유연근무제’라는 말이 무색한 회사 문화, 일은 끝나지 않는데 시계는 잘도 돌아가는 현실과 같은 일상을 꼬집는 대사이다. 출근시간은 정확히 지켜야 하지만, 퇴근은 일이 끝날 때까지 미뤄지는 것이 일상이다. 근로계약서상 ‘9 to 6’지만 실제로는 ‘9 to 언제까지나’인 현실! 직장인이라면 공감 100%.

“슬프든 화나든 밥은 먹어야 하니까”

정신없이 바쁜 일상에서도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행동은 해야 한다는 씁쓸한 자각이다. 감정적 여유는 없지만, 눈치 없게 육체는 끼니를 요구한다. 감정은 감추고 ‘밥값’을 하기 위해 움직이는 삶, 슬픔이나 분노를 곱씹을 시간조차 없는 바쁜 현실이 눈 앞에 펼쳐지더라도 다시 먹고 힘을 내자!

“시키면 해야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회사의 속한 직장인이라면 ‘해야 하는 일’을 한다.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 자신의 의견보다 지시에 순응하는 것이 ‘생존’으로 연결된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휘둘리기보다 다스리자. 내 삶의 중심은 결국 나 자신이니까.

“나 임신한 게 기쁜 거, 맞지?”

기쁜 일이어서 할 임신조차 사회적 시선이나 직장 내 불이익 때문에 망설여지는 현실을 반영한 대사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오는 복합적인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임신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우려와 커리어의 위기로 여겨지는 사회, 기뻐해야 할 일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정부 지원제도

① 육아휴직 등 지원금 제도 개편내용

2025년 7월부터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현행 지급방식
자발적 퇴사시 사후지급금(50%) 미지급

개신 지급방식
자발적 퇴사시에는 사후지급금(50%) 지급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재직자 지원제도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 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이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양한 교육비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여러 혜택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훈련비 지원액
5년간 300만 원+200만 원 추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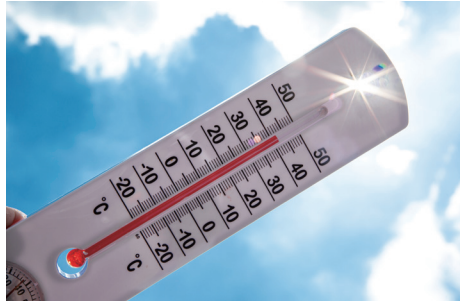
③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새롭게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금액 증가한 고령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 최대 2년간(총 8분기, 최대 480만 원) 지원

지원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월 평균 고령자 근로자 수가 직전 1~3년간의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01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폭염 속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체감 온도 31도 이상 작업장에서 냉방·통풍장치 가동, 주기적 휴식 등 보건조치를 의무화하고,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필수로 규정했다. 사업주는 충분한 시원한 물과 염분 공급을 마련하고, 온열질환 의심 시 즉시 119 신고 및 관련 작업 중단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고온(35도~38도 이상) 작업 시 매시간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의 추가 권고사항도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속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체감 온도 31도 이상 작업장에서 냉방·통풍장치 가동, 주기적 휴식 등 보건조치를 의무화하고,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필수로 규정했다. 사업주는 충분한 시원한 물과 염분 공급을 마련하고, 온열질환 의심 시 즉시 119 신고 및 관련 작업 중단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고온(35도~38도 이상) 작업 시 매시간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의 추가 권고사항도 제시됐다.

02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32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기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이 요청되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다. 노사는 이전 수정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합의 도출에 나섰다. 그 결과, 2026년도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되었으며, 시간당 10,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되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대 약 290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기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이 요청되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민주노총 추천

03 모바일 앱 (건설안전패스)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안전패스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앱은 건설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현장에서 제시·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앱 도입으로 근로자는 모바일 이수증으로 간편하게 증명 가능하고, 관리자는 바코드 스캔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전산 관리할 수 있다. 건설안전패스는 위험요인 실시간 신고·전파 등 현장 내 위험소통 플랫폼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앱 도입으로 근로자 편의성과 현장 안전성이 향상되며, 연간 30억 원의 발급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안전패스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앱은 건설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현장에서 제시·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앱 도입으로 근로자는 모바일 이수증으로 간편하게 증명 가능하고, 관리자는 바코드 스캔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전산 관리할 수 있다. 건설안전패스는 위험요인 실시간 신고·전파 등 현장 내 위험소통 플랫폼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앱 도입으로

04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 행사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안전한 일터, 모두의 행복”이란 슬로건으로 전국에서 다양한 안전문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스마트안전보건 박람회(300개 업체, 1,050개 부스 운영), 세미나(총38건 정책세미나 및 우수사례 13건 발표) 등이 열렸다. 기념식에서는 산재예방 유공자 18명이 정부포상을 받았고, 삼양식품 우종선 부문장은 동탑산업훈장을, 비츠로셀 이정도 공장장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한편, 지역별로도 온열질환 예방, 안전문화 공유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안전한 일터, 모두의 행복”이란 슬로건으로 전국에서 다양한 안전문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스마트안전보건 박람회(300개 업체, 1,050개 부스 운영), 세미나(총38건 정책세미나 및 우수사례 13건 발표) 등이 열렸다. 기념식에서는 산재예방 유공자 18명이 정부포상을 받았고, 삼양식품 우종선 부문장은 동탑산업훈장을, 비츠로셀 이정도 공장장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한편, 지역별로도 온열질환 예방, 안전문화 공유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05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위한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7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실 보수(소득)'로 전환해 가입 누락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실시간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해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직권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 사업장 소득 합산 시 가입도 가능하게 한다. 보험료는 전년도 평균이 아닌 매월 실 보수 기준으로 부과돼 사업주의 부담이 줄고, 구직급여는 '이직 전 1년 보수' 기준으로 변경돼 지급 절차가 간편해진다.

06 국민취업지원제도 5만 5천 명 추가 지원



고용노동부는 경기침체와 고용둔화에 대응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1,652억 원 증액, 총 1조 109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지원 인원이 기존 30.5만 명에서 36만 명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경으로 I유형(구직촉진수당) 2.7만 명, II유형(취업지원서비스) 1.8만 명이 추가 지원받으며, 특히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건설업 퇴직자는 훈련참여수당이 월 최대 28.4만 원에서 48.4만 원으로 상향되고,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07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 정례화



고용노동부는 7월 2일 전국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여한 제1차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고율 관세, 중동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과 지역 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을 고려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고용 둔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매월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1차 회의에서는 회의 운영 계획과 함께 지역별 고용 추세, 산업별 고용 동향 및 향후 전망을 공유했다. 각 지방관서의 대응 현황도 함께 점검하며 지역 중심의 고용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08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 개최



고용노동부는 7월 1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5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사회적기업 인식 제고와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했다. 기념식에서는 사회적기업 및 유공자, 지자체, 민간기관 등에게 장관 표창과 포상이 수여되었으며, 올해부터 협업·판로 우수기관 포상도 신설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복을만드는사람들(주) 등 6개 기업, 4명의 사회적기업가, 그리고 서울은평구 등 8개 자치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대행사로는 사회적기업 혁신 콘퍼런스, 돌봄 관련 토론회, 사회적경제 통합학술대회, 가치 소비를 알리는 '소셜 갤러리' 전시 등이 진행됐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고즈넉한 정자에서 바다를 느끼다 영일대전망대

푸른 바다가 매력적인 포항에는 그만큼 바다를 가까이에서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영일대전망대는 '포항에서 바다를 보기 좋은 곳'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다. 영일대해수욕장에 자리잡은 영일대전망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누각으로 잘 알려졌다.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품은 해상 누각의 이름은 바로 영일정. 영일정은 2013년 공간문화대상을 받을 정도로 가치가 뛰어난 곳이다.

80m 정도 되는 돌 다리를 따라 걸으면, 영일대전망대에 다다른다. 중앙에

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사방으로 불어와 여름이면 자리를 잡고 쉬었다 가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바닷바람만큼이나 좋은 것은 단연코 '뷰'다. 푸른 바다 너머로 포항제철과 인근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산책하거나 윈드서핑, 요트 등의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이다. 주변에 바다 뷰 카페나 맛집 등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편의성도 높다. 이른 아침의 일출과 해가질 무렵의 야경은 일품이다.



영일대전망대에서 바라본 한호공원

올여름, 시원한 바다 뷰 맛집

포항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여름이면 우리는 당연하게 바다로 갈 채비를 한다. 많고 많은 바다 중에서도 올여름에는 푸른 바다가 매력적인 포항으로 가 보자. 탁 트인 바다를 마음껏 바라볼 수 있는 '바다 뷰 맛집'이 많아서 '여름=바다'라는 공식이 역시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글 김민영 사진 정우철



최초의 해상누각 영일대전망대



도심과 어우러진 바다를 조망하다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

영일대전망대에서 차로 3분 남짓 소요되는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는 포항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곳이다. 이름이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인 이유는 환호공원 안에 있어서다. 포항을 대표하는 기업 포스코에서 기획, 제작, 설치해 포항 시민에게 기부한 예술 작품으로, 트랙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구름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든다.

곡선으로 이어진 철 계단을 따라 지상

25m, 가장 높은 곳에 다다르면, 발아래로는 포항 시내가, 눈앞으로는 영일대 바다가 한 폭의 풍경처럼 펼쳐진다. 높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기를 반복하는 독특한 구조와 360도로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는 매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9개의 계단에 선정되었다. 일출과 일몰 명소로도 잘 알려져 계절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직접 체험하며 바라보는 뷰도 좋지만, 곡선의 형태 그 자체로도 아름다워 스페이스워크 자체만을 사진에 담기 위해 찾는 사진가들도 많다. 저녁이면 계단 전체에 불이 들어오는데 멀리서 보면 하나의 예술작품이 포항을 지키고 있는 듯 하다. 한 가지 팁은, 공원이 워낙 넓어서 가장 가까운 경로로 스페이스워크에 찾아가고 싶다면, 제3주차장을 통해 가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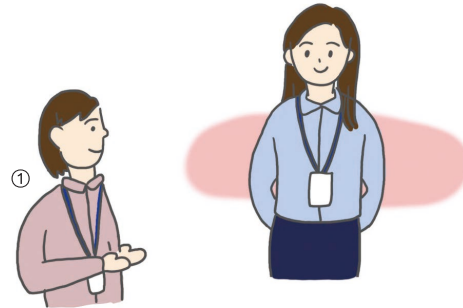
바다를 향해하는 매력을 품다 이가리닷전망대

이가리닷전망대는 포항의 푸른 바다와 가장 잘 어울리는 전망대로, 바다 도시 포항의 특색을 살려 '닷'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이가리닷'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나면 재밌다. 이가리닷전망대가 있는 이가리(二加里)는 김 씨와 도 씨 두 가문이 합쳐 만든 마을이다. 이가리닷전망대는 '이가리에 있는 닷 모양의 전망대'라는 뜻이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닷이 독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가리닷전망대에서 독도까지 직선거리는 215km로, 독도를 수호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기도 했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푸른 바다를 사방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것. 바다를 정면에 두고 전망대 가는 길 왼쪽으로 거북바위를 찾는 재미도 있다. 게다가 전망대의 끝, 닷을 형상화한 부분까지 가면 마치 향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빨간 지붕 조형물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것은 필수. 전망대는 짧지만, 즐길 길 거리는 무궁무진하다. 바로 옆 이가리 간이해변에서 평상을 예약하고 쉬었다 가도 좋고, 피라술을 대어해 해수욕을 즐기기도 좋다. 차로 5분 남짓한 거리의 월포해수욕장과 이가리항은 이가리닷전망대와와는 또 다른 바다의 매력이 느껴지는 곳이니 시간적 여유가 허락한다면 모두 둘러봐도 좋겠다.



섬세씨를 소개합니다



저 직장 동료 섬세씨는요.
일할 때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소한 것도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늘 꼼꼼히 채깁니다.



섬세씨의 섬세함은
무엇든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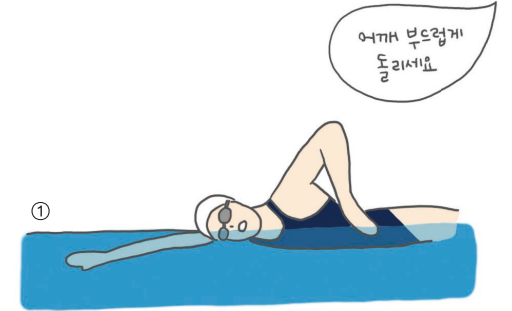


무든 대충대충 했다면
일도 관계도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었겠지요.



섬세함은 직장 생활에서 곧 책임감이고,
부드럽지만 강한 능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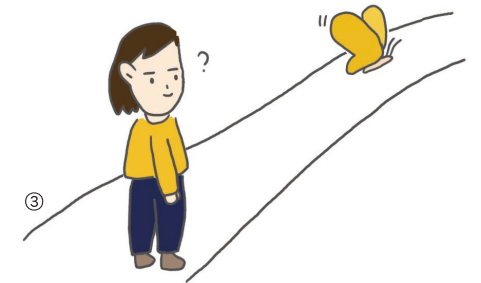
유연함이 치트키



운동할 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어딘가 다치기 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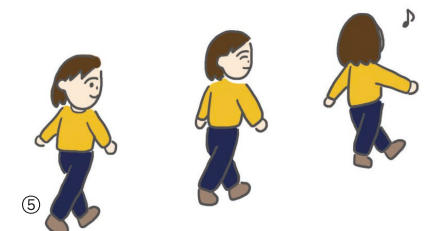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더 발전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곤 해서
길을 잃고 헤메기도 하고 멈춰있기도 합니다.



실패 앞에서 다시 도전하는 유연함
나와 다름을 편견 없이 수용하는 유연함



일상 속에서 유연한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봐요.
성숙해진 내 모습에 한발 더 가까워지는 마음으로요.

무채색 사무실을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플랜테리어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이지만,
우리네 사무실은 칙칙한 무채색인
경우가 많다. 요즘 직장인들이
실내에서 키우기 쉬운 몇 가지
식물을 들여놓는 플랜테리어를
실천하며 업무 분위기 산뜻한
초록빛으로 바뀌어 나가는 이유다.

글 강진우

● 공기와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다

플랜테리어는 식물(Plant)과 인테리어(Interior)
의 합성어로, 식물을 실내 디자인의 한 요소로
활용하는 인테리어 기법이다. 미세먼지 증가,
실내 공기 질 저하 등 대기오염이 주요 사회문
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기 정화 효과가 입증된
식물들을 집, 사무실 등 실내 일상 공간 곳곳에
배치하면서 시작된 플랜테리어는 최근 직장인
들 사이에서 ‘책꾸(책상 꾸미기)’의 핵심 콘셉트
로 자리 잡았다.

직장인들의 플랜테리어 유행, 그 배경에는 높
은 정서적 효능감이 존재한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5년 60㎡ 사무실에 3㎡ 규모의 식물
을 배치한 뒤 직장인 83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효과를 실험한 결과 긴장감, 우울감, 피로 등의
감정이 22% 감소한 반면 활력지수는 38% 증
가했다. 긴장으로부터 마음을 회복시키는 능력
인 주의회복척도가 57% 향상됐으며 쾌적함, 편
안함 등 긍정적 감정도 한결 높아졌다. 여기에
실내 습도 조절,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알려지자, 이른바 ‘반려식물’을
업무 공간 주변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트렌드가
형성된 것이다.

플랜테리어라고 하면 큰 화분을 곳곳에 비치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
렇지 않다. 머그컵 정도의 공간만 할애하면 얼
마든지 플랜테리어의 효과를 만끽할 수 있다.
정 책상에 화분을 놓을 곳이 마땅치 않다면 파
티션이나 모니터 거치대에 걸어놓고 자주 볼
수 있는 행잉 식물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다. 요컨대 플랜테리어의 핵심은 ‘식물의 규모’
가 아니라 ‘식물과의 교감’인 것이다. 일하기가
딱딱하다고 느껴진다면, 업무 분위기가 도무지
살아나지 않는다면 싱그러움이 살아 숨 쉬는

**공기 정화는 물론
정서적 안정까지
작은 식물 하나로
일상에 힐링을 더해보세요!**

나만의 반려식물을 마련해 보자. 기대 이상의
힐링을 가져다줄 것이다.

● 초보 식집사에게 추천하는 반려식물

산세베리아

미항공우주국(NASA)가 선정한 공기정화식물
중 하나로, 뛰어난 실내 공기 정화 효과를 보유
하고 있다.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산소를 배출
하기 때문에 머리를 맑게 유지하는 데에도 도
움을 준다. 2~3주에 한 번씩 물만 주면 특별한
관리 없이도 잘 자란다.

필로덴드론

열대 우림에서 온 덩굴성 식물로, 조도가 낮은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다. 넓고 윤기 나
는 잎을 갖고 있어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난데,
덩굴성 식물의 특성을 살려 행잉 화분에 키우
면 더욱 좋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물은 1~2주마
다 주면 된다.

페퍼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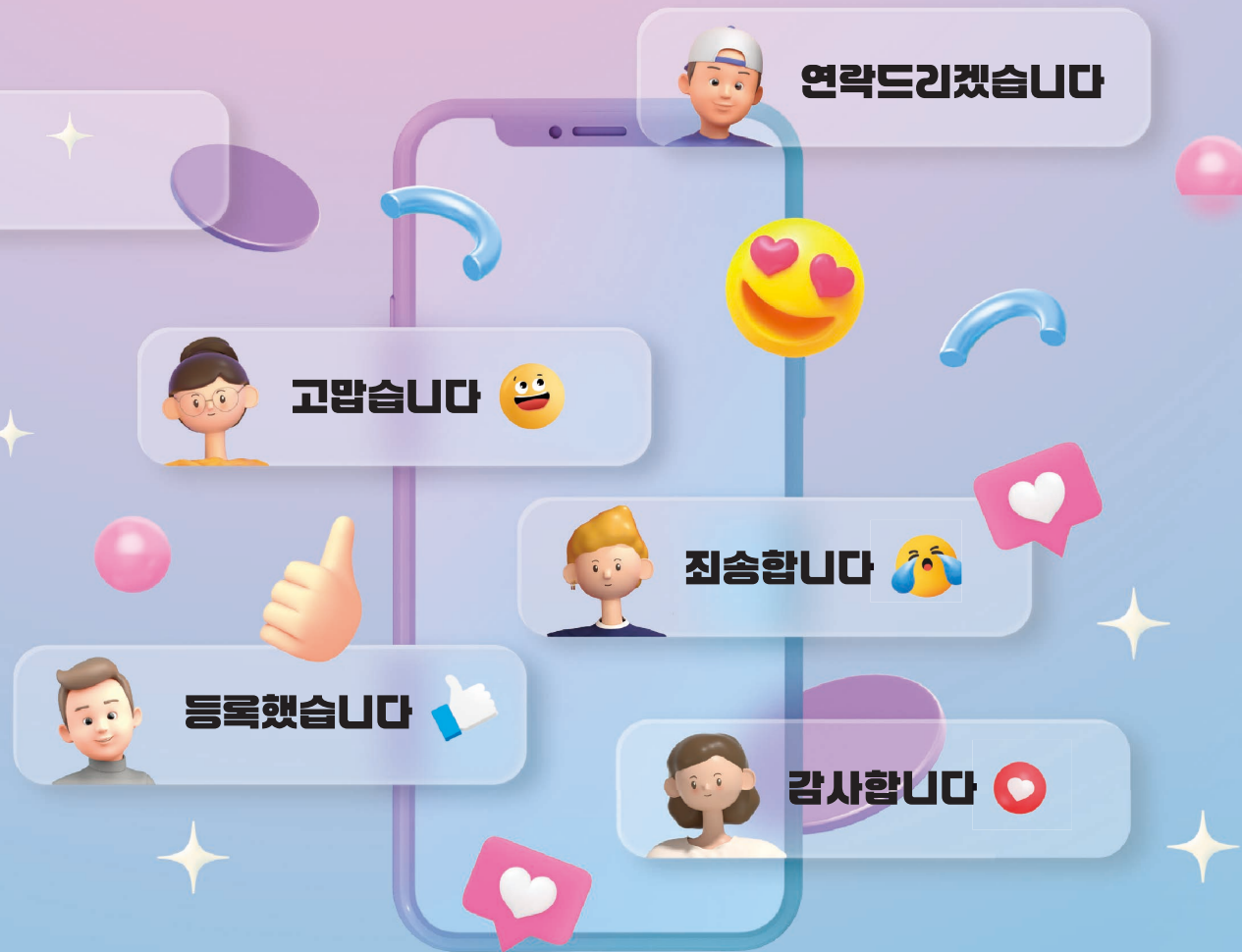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허브식물로, 특유의 은
은한 향기가 집중력을 높여준다. 자라는 속도
가 빠른 편에 속하며, 잎을 따서 차로 마시거나
방향제로 활용할 수 있어 실용성도 높다. 물 빠
짐이 좋은 화분을 골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
을 주는 게 좋다.

감정을 건네는 작은 언어 조각들

이모지와 이모티콘

우리의 하루는 얼마나 온라인에 있을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잠들기 직전까지 SNS나 메신저를 훑는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 중 상당 부분은 이제 화면 속에서 오간다. 그리고 그 대화 한가운데, 말 대신 웃고 찡그리는 작은 얼굴들이 있다. 바로 이모지와 이모티콘이다.

글 편집실 자료 시각언어로서 이모티콘의 감성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관한 연구 외



감성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언어

오늘날 우리의 대화 중 상당 부분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SNS, 메신저, 이메일 등 디지털 플랫폼이 일상 커뮤니케이션의 주 무대가 되었으며, 시각언어(이모지나 이모티콘)를 사용하는 빈도도 늘어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정보의 83%를 시각에서 얻으며, 문자보다는 시각언어에 더 빠르게 반응한다고 한다. 이처럼 시각언어로서의 이모티콘과 이모지는 디지털 시대에 감정을 빠르고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 체계로 자리 잡았다. 이모지와 이모티콘은 언어를 초월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텍스트만으로는 차칫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메시지에 미소 하나, 하트 하나를 더함으로써 따뜻함을 전달하거나 농담을 부드럽게 완충한다. 또한 이모티콘은 표정, 몸짓,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비언어적 신호를 대체해준다. 이는 마치 얼굴을 맞댄 대화에서 표정과 몸짓이 정보를 보강하는 것과 유사하다. 실제로 “고마워”라는 단순한 문자 메시지와 “고마워 😊”라는 메시지는 받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 후자는 더 따뜻하고 친근한 감정을 전달하며, 메시지 전체의 톤을 부드럽게 만든다. 시각언어는 이렇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감정의 온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현의 유연함과 해석의 모호함

하지만 이모지와 이모티콘이 완벽한 감정 전달 도구는 아니다. 동일한 이모티콘도 문화권과 개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같은 웃는 얼굴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모호하거나 오해를 낳기도 한다. 예를 들어, 😊 엄지척 이모지는 서양 문화권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일부 중동 지역에서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여겨진다. 또한 😊 이모지는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운 웃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이모티콘의 유연한 매력이자 한계다. 또한 과도한 사용은 감정 표현의 깊이를 떨어뜨리거나, 대화를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다. 이모티콘은 어디까지나 감정을 보조하는 수단이지, 감정 그 자체를 완벽히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려와 맥락을 담은 소통의 기술

결국 이모지와 이모티콘도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식이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향한 배려다. 내가 보낸 웃는 얼굴 하나가 상대방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하트는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친밀하게 보일 수도 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할 때 표정과 어조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하듯, 온라인에서 이모지와 이모티콘을 사용할 때도 그 맥락과 관계를 살펴야 한다. 상대의 입장과 기분을 헤아리고 쓰는 것이야말로 이모티콘이 가진 감성 커뮤니케이션의 가치를 온전히 발휘하게 만드는 길이다. 이모지는 상황과 대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상사에게는 격식 있는 표현을, 친구에게는 자유로운 표현이 어울린다. 슬픈 소식엔 웃는 이모지보다 위로의 이모지가 적절하다.

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향해

이모지와 이모티콘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언어다. 그것들은 우리가 화면 너머의 상대방과 더 인간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도와준다. 때로는 천 마디 말보다 하나의 이모지가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작은 하트 하나가 온종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가 건네는 작은 언어의 조각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포시 감싸주기를. 그리고 그 작고도 커다란 언어가,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본다. 디지털 시대의 감정 전달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며, 그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다.

「월간 내일」과 함께 하는 QUIZ



「월간 내일」 2025년 8월호를 읽고 모의고사에 응시해 보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단답식 제출범위. MOEL 아카이브

기아와 정부, 오토큐가 협력하여 전기차 정비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11개 직업훈련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훈련 과정의 명칭은 무엇인가?

Hint!

전기차 정비교육과정

단답형 제출범위. MOEL 아카이브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훈련비 전액 지원 등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참여를 돕기 위해 강화된 정부의 고용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

Hint!

고용노동부



참여방법 I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 참여기간
2025년 8월 20일(수)까지
※ 당첨자에겐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7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엄○현(5068) 박○미(3412) 김○삼(6616) 이○옥(5885)
유○미(6718) 김○옥(9410) 전○주(6083) 김○민(7655)
엄○황(0291) 이○형(9410)

「월간 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 1 「월간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 2 [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가까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제도·정책 소식이 궁금할 때,
고용노동부와 소통하고 싶을 땐 QR을 스캔하세요!

웹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